

목적관련_면담 내용

● 목적학생 송○○ 면담 시나리오

교사: 송○○ 학생, 체육시간에 있었던 일을 목격했다고 했지?

송○○: 네... 조○○이 박○○을 몰래 찍는 걸 봤어요. 수업 중이라 그냥 장난인가보다 했고, 그때는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.

교사: 이후 단독방 분위기는 어땠어?

송○○: 박○○ 영상이 올라오고 다들 웃고 있었어요. "지진남" 같은 말도 나오고요. 저도 그냥 'ㅋㅋㅋ' 정도 썼던 것 같아요.

교사: 이○○, 최○○ 관련해서도 봤던 게 있니?

송○○: 네, 이○○ 발표 영상도 올라왔고, 정○○이 올린 혼자 책 읽는 사진도 봤어요. 그때 웃는 분위기였지만, 지금 생각하면 심각했어요.

● 목적학생 안○○ 면담 시나리오

교사: 안○○ 학생, 단독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?

안○○: 조○○이 이○○ 발표 영상을 올렸고, 김○○이 "말더듬이 콘테스트" 같은 말도 했어요. 분위기가 점점 조롱 쪽으로 흘러가는 게 느껴졌어요.

교사: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?

안○○: 불편했어요. 근데 괜히 말렸다가 저까지 따돌림 당할까봐... 무서웠어요. 채팅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였어요.

교사: 점심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?

안○○: 정○○이 혼자 책 읽는 이○○을 몰래 찍고 올렸어요. '친구 없어서 책이랑 대화하나 봄' 같은 글도 썼고요. 그건 진짜 잘못됐다고 느꼈어요. 그래도 말은 못했어요.

● 목적학생 박○○(동명이인) 면담 시나리오

교사: 박○○ 학생, 최○○ 관련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지?

박○○: 네, 김○○이 최○○의 복장을 찍는 걸 봤어요. 근데 전 수업 집중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모른 척했어요.

교사: 이후 단독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?

박○○: 쉬는 시간에 김○○이 다른 애들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웃는 걸 봤어요. '패션 테러리스트'라고도 말했어요. 저는 그냥 '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'라고 생각했어요.

교사: 조○○이 미술 시간에 한 행동도 봤다던데?

박○○: 네, 조○○이 최○○ 그림을 몰래 찍고 비웃는 표정 짓는 걸 봤어요. 그때도... 그냥 넘어갔어요. 지금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.